

主 编 张天红
副主编 郝青松
李德恒 徐龙股 (韩)
辽宁美术出版社

东游·山居

东方生态与文化更新

第六届中韩国际艺术展

主 编 张天红

副主编 郝青松 李德恒 徐龙殷(韩)

辽宁美术出版社

동유·산거

동방생태와 문화업데이트

제 6 회 중한국제예술전

첫 회 한국삼형국제예술절

편집장 장천홍

부편집장 학청송 이덕항 서용은

요녕미술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东游·山居 : 东方生态与文化更新 : 第六届中韩国际艺术展 / 张天红主编. — 沈阳 : 辽宁美术出版社, 2016.8

ISBN 978-7-5314-6828-8

I. ①东… II. ①张… III. ①艺术—作品综合集—中国②艺术—作品综合集—韩国 IV. ①J121②J23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16) 第191415号

出版者: 辽宁美术出版社
地 址: 沈阳市和平区民族北街29号 邮编: 110001
发 行 者: 辽宁美术出版社
印 刷 者: 沈阳博雅润来印刷有限公司
开 本: 889mm×1194mm 1/16
印 张: 7.25
字 数: 200千字
出版时间: 2016年8月第1版
印刷时间: 2016年8月第1次印刷
责任编辑: 彭伟哲
装帧设计: 王 毅
责任校对: 郝 刚
ISBN 978-7-5314-6828-8
定 价: 128.00元

邮购部电话: 024-83833008
E-mail: lnmscbs@163.com
http: //www.lnmscbs.com
图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部联系调换
出版部电话: 024-23835227

艺术顾问: 岛 子

主 编: 张天红

副 主 编: 郝青松

李德恒

徐龙殷 (韩)

编 委: 徐成德 (韩)

董贵晗

郭文宁

黄真熙

张秋立

白 坤

梅岩岩

常 虹

黄金月

张京姬

예술고문: 도 자

편집장: 장천홍

부편집장: 학청송

이덕항

서용은

편집위원: 서성덕

동귀함

곽문녕

황진희

장추입

백 곤

매암암

상 홍

황금월

장경희

东游·山居

东方生态与文化更新

第六届中韩国际艺术展

主 编 张天红

副主编 郝青松 李德恒 徐龙殷(韩)

辽宁美术出版社

동유·산거

동방생태와 문화업데이트

제 6 회 중한국제예술전

첫회 한국삼형국제예술절

편집장 장천홍

부편집장 학청송 이덕항 서용은

요녕미술출판사

第六届中国国际艺术展

学术主席: 宋惠民 赵康勋(韩) 王易霓 金一海(韩) 宫立龙

韩方策展: 徐龙股

中方策展: 岛子 张天红

学术主持: 陈建军 宋玉成 王希奇

艺术总监: 郝青松 徐成德(韩)

展览总监: 韩春虎 崔万田 焦涌

总策划: 李德恒

常务策划: 黄真熙 董贵晗

主办机构:

韩国美术协会 辽宁省美术家协会 鲁迅美术学院油画系

鲁迅美术学院美术史论系 中国文化部艺术科学研究所

辽宁大学文学院 辽宁美术出版社

承办机构:

韩国稚岳人艺术联合团体

HONGKONG VALUABLE ART TRADING CO., LIMITED

中国虹空间国际艺术中心

展览时间: 2016年8月9日-14日

展览地点:

韩国三形国际艺术中心

韩国原州市立中央图书馆

韩国徐氏艺术画廊

鸣谢: The LOVE 财团法人 HO SAN E&C 株式会社

제 6 회 중한국제예술전

학술주석: 송혜민 조강훈(한) 왕의니 김일해(한) 궁립룡

한국전시기획자: 서용은

중국전시기획자: 도자 홍천홍

학술사회: 진건군 송옥성 왕희기

예술감독: 학정송 서성덕(한)

전시감독: 한춘호 최만전 초용

출간인: 이덕향

상무기획: 황진희 동귀함

담당단체:

한국지악인예술연합단체

HONGKONG VALUABLE ART TRADING CO., LIMITED

중국홍공공간국제예술센터

주최단위:

한국미술가협회 중국요녕성미술가협회 중국노신 미술학원 미술사학과

중국문화부 예술과학연구소

요녕대학 문학원 요녕미술출판사

전시시간: 전시회시간: 2016년 8월 9일-8월 14일

전시장소:

한국 서씨예술 갤러리

한국원주시립 중앙도서관

한국삼형국제예술센터

감사합니다: The LOVE 재단법인 더사랑 HO SAN 호산이앤씨

致辞 / 연설문

各位中韩艺术家朋友们，大家好！

韩国稚岳人艺术联合团体创建已经六年了。在六年中，我们致力于促进本地区文化艺术的发展，寻求国际性与群体性，并为开拓地域艺术所拥有的独创性而努力着。

艺术并不遥远，就在我们生活当中，并时刻与我们紧密地联系在一起。所以在繁忙的日常生活中真切地感受并领悟到的点点滴滴，将其转化为艺术作品的时候，我们会感受到艺术带给我们美丽的人生感动。这次韩国和中国艺术家们共同举办的交流展，体现了我们全部的真诚和努力，希望交流中孕育和创造彼此的发展。通过展览活动，提高艺术家在地域文化发展中的竞争力，我确信与中国树立友好关系并以文化为铺垫，每届中韩展都在创造一个充满希望的契机。

现在中国是我们最近的国家，最重要的邻居，是我们日常生活中互相依存的朋友，彼此之间人际和物际的交流具有悠久的历史。但现在我们更需要重新审视当代中国，不能只停留在过去历史悠久的关系上，需要从今天国际化的视角重新解析悠久的历史世界遗产。以后两国间大大小小的文化交流会更加频繁地展开，不断地加强交流，增加信赖，我相信，我们的未来会比以往的世纪更辉煌。

我们地区的价值是我们国家的价值，我们这里有着优秀的历史和传统，我们也会为我国的未来创造价值。现代文化艺术对韩国的形象有着很重要的影响力。我们国家已经涌现出在世界卓有名气的文化艺术人才。我们作为艺术人，不要忘记使心脏跳动的无限创造性的能量。

让我们都因为艺术而在世界上共存！

稚岳人艺术联合团体 会长 徐龙殷

Tree Form Art International center

2016 年 8 月

중한예술가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악예술인 연합을 결성한지도 어느덧 6 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을 이끌며 지역예술의 정체성을 찾아 지역 예술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의 생활 속에 늘 함께 있는 것이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작품화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술이 주는 아름다운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국과 중국 작가들이 힘을 모아 전시회를 마련한 것 또한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서로 소통하고 느껴보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회가 예술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음으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희망을 함께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중국은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이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조차 뗄 수 없는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 진지 오래입니다.

이젠 우리가 중국을 새롭게 다시 봐야만 합니다. 지나온 오랜 과거의 역사적 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오랜 세기의 역사적 자산을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국가 간에 크고 작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더 깊이 소통하고 신뢰가 쌓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난 세기들 보다 훨씬 더 빛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가치는 바로 국가의 가치이고 그 지방이 갖고 있는 우수한 고유성과 전통성은 우리나라 미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문화예술이 국가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위대한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예술인 여러분,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모두가 예술로서 세상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지악예술인 연합회 대표 서용은

Tree Form Art International center

2016 년 8 월

曹原铭 조원명	崔万田 최만전
崔雪冬 최설동	崔贵龙 최귀룡
陈晓工 진소공	褚学良 저학량
岛子 도자	董贵哈 동귀합
郭文宁 곽문녕	宫名 궁명
巩大君 공대군	胡戎 호용
黄真熙 황진희	黄雪梅 황설매
李未名 이미명	李月亮 이월량
李彦才 이언재	刘长清 유장청
刘耀先 유요선	刘刚 유강
刘大可 유대가	刘帅 유수
马德龙 마덕룡	马铁伟 마철위
曲师成 곡사성	饶松青 요청송
宋玉成 송옥성	宋鬼聿 송귀을
孙华卫 손화위	孙秀庭 손수정
孙浩良 손호량	汪明强 왕명강
汪晓松 왕소송	沈浩然 심호연
王俊 왕준	王宝菊 왕보국
王巍 왕위	王霞 왕하
王戎 왕용	吴震寰 오진환
吴明礼 오명례	许乐 허락
伊灵 이령	严程 엄정
曾昭满 증소만	张天红 장천홍
张一非 장일비	朱久洋 주구양
朱洪霖 주홍림	



서용은
徐龍殷
정해웅
丁海雄
정지연
丁智妍
곽현주
郭賢柱
권오준
權五駿
권용철
權龍喆
김기복
金基福
김선옥
金善玉
김연순
金艷順
박채성
朴彩星
서성덕
徐成德
서은환
徐銀煥
심단효
申丹孝
원종순
元宗順
원민규
元敏奎
유희정
柳熙貞
이동훈
李東勛
이명준
李明俊
이현경
李賢慶
채순자
蔡順子
최정순
崔正順
주태석
朱泰石
이석주
李石朱
정우범
鄭于範
김일해
金一海
조강훈
趙康勛



启示与更新

——中韩两国作为东方文化共同体的历史与未来

郝青松

东方与西方，在历史上自然形成了文化的差别。近代以来西方航海与工业文明逐渐领跑于东方的农业文明，而今东方世界日新月异，正在逐步缩小东西之间的差距。无论东西，都须面对古今之变的历史趋势。特别对于后发展的东方来说，更重要的是在古今之变中更新自身，而并非刻意强调东西之争，自居于历史潮流之外。

东亚国家的文化，多以儒家传统为根基。无论遭遇了多少次的“靖康之变”，朝代频繁更易，中国依然是中国，依然是东亚文化的历史基础所在。但是，这一文化底气却在近代以降逐渐变得虚弱起来。西方显而易见的强大与压力已不容忽视，尤其是亚洲第一个近代化国家日本在甲午海战大败中国的无情事实，更促使这个古老的国家痛下决心，壮士断腕。从一百年前的新文化运动开始，中国断然转身，以西学建构起一个全新的社会结构。但是，具有实用理性惯性的中国在根本上中国依然在延续外儒内法的传统，并且与真正的西方隔膜开来。如此看来，经过一个世纪的努力之后，中国依然是自己认为的东方，并没有经历真正的古今之变。

反观韩国，上世纪80年代终于与现代世界接轨，建构成一个全新的社会。如今，韩国已经成为东亚国家现代化的样板，为世界瞩目。究其原因，与其古今之变历史趋势中的文化更新颇有关系。

文化更新，不同于保守主义的文化复兴，亦不同于激进主义的文化断裂。

文化复兴论似乎是针对文化断裂现实思考和反拨，实则两者如出一辙，都未真正思考古今之变的历史关系，而是偏执于东西之争。

历史上中国文化和艺术遭遇过很多次东西之争与古今之变的问题，其中魏晋时期佛教入华的历史影响最为深远。佛教原在印度，东汉时传入中国。魏晋之际，战乱频繁，生灵涂炭，佛教趁虚而入，及时填补了人们内心的信仰需求。更重要的是，佛教中国化的同时伴随着佛教对中国文化的全面改造。以至于禅宗这个佛教中国化的产物，在中唐之后强烈影响到文人画的发展。文人画始祖王维，字摩诘，他已深受佛教影响。以至于，晚明董其昌阐明了“以禅喻画”的文人画画理，把文人画也分为南宗和北宗，“南顿北渐”，南宗注重顿悟，北宗注重渐修。董其昌则崇南贬北，认为历史自然选择了南宗，使之成为历史正脉。其实更应该说，历史选择了西方来改造东方。佛教进入中国，历经无数次灭佛事件，但最终中国文化被佛教所改造。东西之争被古今之变的历史必然趋势所化解，东西之争最终成为东西融合。今天，任谁也不会说佛教是外来的宗教了，早已认为它是扎根在中国的宗教。岂不知，这是古今之变的结果。然而，我们总是很容易就遗忘了历史的经验，忘记了自己正是古今之变跨越东西之争而来的。

因此导致了，当我们又一次进入历史循环之中，再次面对西方——更远的西方——欧洲的时候，全然忘记了古今之变的历史规律，而陷入到民族主义的痼疾中去。可以说，20世纪是民族解放的世纪，但也是“救亡压倒启蒙”

的世纪。民族主义的东方性对来自西方的现代性似乎有种天然的拒斥，严重影响了中国社会的现代进程，当然也包括艺术与文化的现代性。

当今天反思当代艺术问题的时候，一个论调不时被提起，认为之前当代艺术的话语权是受到西方的影响和控制，而时代逻辑应该转换到东方自己的话语权。但事实上，我们对于西方的认识依然极其有限，在通往现代的道路上，这一脚刚迈出去半步却又要退回来。究其原因，还在于在东西之争与古今之变的问题上又重蹈覆辙。

在文化更新的方向上，韩国已经成为东方国家的一个样板，开放进取，古今兼备，颇具启示，值得中国所汲取。

韩国在历史上深受民族主义影响，直至今日，但似乎没有影响到自身古今之变的现代进程。在20世纪后半期暂时摆脱战争阴影之后，韩国重整山河，发展经济，很快成为举世瞩目的亚洲四小龙之一。韩国当代艺术也受到社会整体转型的影响，短时间内进入到世界一流水准，涌现出李崇焕、白南准这样的世界级当代艺术家，以及光州双年展这样的国际水准展览会。比较中韩当代艺术，似乎中国艺术家的作品颇为生猛，却流于表面，未能触动真正的文化问题与普世价值。韩国的当代艺术却是真正在古今之变的实践中经受锤炼，并且已经有了较为宽松的思想环境，可以客观回顾与评价历史的教训和价值，从而能够激发出个体心无旁骛的创造力。

不能不说，韩国社会与艺术的进路与其国

民信仰程度密切相关。在一个政教分离的现代国家，信仰建构起非世俗的精神世界，并且直接作用于艺术创作。信仰又是现代思想世界的源泉，为其贡献源源不竭的动力。在一个多元主义的世界中，文化更新使得自身文化在古今之变中成功转型，可以有效化解亨廷顿所称的“文明冲突论”，它的意义不限于东亚。

世界大家庭中，东亚国家形成了历史上的文化和地域共同体，都面对相同的民族独立和社会现代转型问题。近几十年内，东亚国家之间差距分化严重，不仅在经济实力的对比，更在社会价值观的分离。中国正在经济崛起，但文化和思想能否崛起是另一个重要的问题。韩国则已经历了经济和文化兴起的过程，其中的经验和教训都值得中国关注。另一方面，中国作为东方文化的根系所在，无论何时都是文化更新的历史基础，也是韩国现代化过程中不容回避的现实。

文化生态不止于自然，亦在社会。众多自然灾害的频频发生，究其原因却在于人祸，在于社会生态的保守和痼疾。一个国家是否完成了文化和社会的现代转型，事关国民福祉，是一个现代国家的重要标志。当代艺术在这个意义上不止于艺术自身，而是一块古今之变的试金石。

中韩两国曾是历史中的文化共同体，唇齿相依，密不可分。如今，在古今之变的世界趋势中，中韩两国更应成为走向现代社会的文化共同体，为东亚的世界化和现代化联手共鸣。

2016年7月

계시와 갱신

—중한 양국이 동방문화공동체로서의 역사와 미래

학청송

동방과 서방은 역사상 자연적으로 문화차이가 생겼다. 근대인들이 서방의 항해와 공업문명이 점점 동방의 농업문명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은 동방이 낡아 새로와져 동서방 차이를 좁히고 있다. 동서방을 막론하고 모두 역사발전의 필연적 추세에 면립해 있다. 특히 후에 발전한 동방으로 말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고금지변 중 자신을 새롭게 갱신 한 것이고, 동서쟁론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의 발전조류 외에 맞닥쳐야 한다.

동아국가의 문화는 많이는 유가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차례의 “정강지변”의 봉변을 당하더라도, 조대의 빈번한 교체에도 막론하고 중국은 여전히 중국이고 여전히 동아문화의 역사바탕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런 기력이 근대에 들어서서 점점 허약해졌다. 서방의 강대함과 압력을 홀시 할수 없었고 특히 일본과의 갑오 해전에서의 패배는 중국으로 하여금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보전시키는 결단을 내리게끔 촉진하였다. 백여년 전 신문화운동으로부터 중국은 단호히 서방을 학습하여 새로운 사회구조를 건립한다. 하지만 실용 이성 관성을 갖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외유내법의 전통을 연장할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서방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한 세기의 노력을 걸친 후 중국은 여전히 자기가 동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고금지변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세기 80 년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현대세계와 접속되어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국가의 현대화모범이 되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고금지변 역사추세 속에서 문화갱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화갱신은 보수주의의 문화부흥과 다르고 급진주의 문화단절과도 다르다.

문화부흥론은 마치 문화단절 현실반성과 반박을 견주 는것 같지만 사실상 양자는 꼭 같은 것이다. 모두 고금지변의 역사관계를 진정으로 사고하지 않고 동서다툼으로 편집한 것이다.

역사상 중국문화와 예술은 수차례 동서다툼과 고금지변의 문제에 부딪혔다. 그중 위진시기 불교입화의 역사영향이 제일 심원하다. 불교는 인도에서 기원하여 동한시기에 중국에 전파되었다. 위진시기 전쟁이 빈번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틈을 타 불교가 들어왔고 때맞게 사람들의 신앙요구를 메워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화 불교의 동시에 중국문화의 전면개조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 중국화의 산물인 선종으로 중당 이후 문인화의 발전에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 문인화의 시조인 왕유는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하여 명청시기 동기창이 “선으로 그림을 비유했다.”고 문인의 그림을 해명했다. 문인화도 남종과 북종으로 나누었는데 남종은 깨달음을 중시하고 북종은 수양을 중시했다. 동기창은 남종을 숭배하였기에 역사도 당연히 남종을 선택하였고 남종의 가치관은 역사의 정맥으로 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역사는 서방이 동방을 개조 할것을 선택했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후 수많은 멸불사건을 겪었지만 나중에 중국문화가 불교에 의해 개조되었다. 동서방 다툼이 고금지변적인 역사의 필연적 추세에 의해 화해되고 동서방 다툼은 나중에 동서방의 융합으로 끝나는 것이다. 오늘, 누구도 불교가 외래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미 불교가 중국의 종교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고금지변의 결과라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쉽게 잊었고 자기가 바로 고금지변으로 동서방의 다툼을 뛰어넘어 온 것이라는 것을 잊었다.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역사의 순환에 진입하고 또다시 서방 - 멀고 먼 서방 - 구라파를 직면할 때 고금지변의 역사법칙을 모조리 잊

고 민족주의 고질병에 빠져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방은 민족주의로 서방의 현대화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 중국사회의 현대화진행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여기에는 예술과 문화 현대성도 포함된다.

오늘에 와서 당대예술문제를 반성할 때 당대예술의 발언권이 서방의 영향과 공제를 받았지만 시대의 논리는 동방한테 발언권이 있다고 여기고있다. 하지만 실재상 우리는 서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제한되어있고 현대화로 통하는 길에서 금방 한 걸음 내디디었는데 반 걸음이 반송되어 왔다. 그 원인은 동서방 쟁탈과 고금지변의 문제에서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였기때문이다.

문화갱신방향면에서 한국은 이미 동방국가의 모범이 되었다. 개방진취, 고금검비는 중국에게 커다란 계시를 주고 있다.

한국은 역사상 민족주의 영향을 깊게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자국의 고금지변 현대진척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길로 보인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잠시적인 평화 속에 한국은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전세계 주목을 받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당대예술가들과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국제수준 전시회를 속출했다. 중한당대예술을 비교해보면 중국 예술가의 작품이 제법 웅장스러운 것 같지만 표면에 치우치지 않아 진정한 문화문제와 세상가치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래도 한국당대예술은 고금지변에서 진정한 사회현실 중에서 연마를 겪었으며 더욱이 비교적 여유로운 사상환경을 가졌고 역사의 교훈과 가치를 객관적으로 회고하고 평가할 수 있어 예술가들의 전념적인 창조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사회, 예술진로, 국민신앙정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국가에서 신앙은 비세속적인 정신세계

를 구축할뿐만 아니라 예술창작에 직접적인 작용을 일으킨다. 신앙은 또한 현대사상세계의 원천이며 이에 대한 공헌은 다함없는 동력이다. 다원주의 세계에서 문화갱신은 자기 문화가 고금지변에서 성공적으로 전형하게끔 하고 형언돈이 말한 “문명충돌론”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그 의의는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대가정 중 동아시아국가는 역사상의 문화와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모두 공동한 민족독립과 사회현상 전형문제에 직면하였다. 근 몇 십년내 동아시아국가지간의 차이분화가 엄중해졌는데 이를테면 경제실력의 비교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회가치관의 분리였다. 중국은 지금 경제가 쫓기하지만 문화와 사상이 쫓기할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이미 경제와 문화의 흥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경험과 교훈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다른 한방면으로 중국은 동방문화 뿌리가 있는 나라로서 언제 어디서나 문화갱신의 역사적 기초일뿐만 아니라 한국현대화과정에서 피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화생태는 자연을 넘어 사회에도 있다.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원인은 최종적으로 인재때문이고 사회생태보호와 고질병에 있다. 한 나라가 문화와 사회의 현대전형을 완성해냈는가 하는 것은 국민복지와 관련될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중요한 표징이다. 당대예술은 의미상 예술본신을 넘어 고금지변의 시금석이다.

중한 양국은 예전부터 역사 속에서 문화공동체였고 서로 의지하고 돕는 갈라놓을수 없는 관계였다. 지금 고금지변의 세계적 추세하에서 중한 양국은 현대사회로 향하는 문화공동체로 되어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현대연합에 공명해야 한다.

2016년 7월

东游、东方主义和东方艺术生态

张天红

一、东游

“我的眼睛，
发现处处美景，
一路伸展，无边无际，
褐色的草场，灰色的休耕地，
群鸟啄食，怡怡闲情，云朵争相在那里栖息，
眼底下，楼塔和城垛，被簇簇绿树环抱，高高耸起，”

——弥尔顿《欢乐颂》

老庄时代，山水即世界观。在中国，山水艺术即世界观。山和水是分不开的，有山必有水，中国的风景画又叫山水画，寄情山水，天人合一、自然而然就是东方传统的宇宙观和自然观。传统意义上的“东方”相对于欧洲而言，即欧洲的东部，包括中国、日本、韩国、东南亚等国家。广义的“东方”不仅是个地理概念，也是个文化概念。东方文化历经几千年而没有中断，和西方文化形成了两个相互对比的思想体系，在西方人的眼中东方又被冠以神秘的东方之称。东方各国自古即深受华夏文明的影响，逐渐形成了以中国传统哲学和儒家思想为特点的东方文化体系。

在西方，18世纪晚期，英国弥尔顿等诗人与透纳等画家一道描绘着风景的如画美，他们认为，绘画和诗歌的价值先于风景，并且探讨风景画的道德意义、废墟之美和艺术的社会学意义。英国美术史家肯尼思·克拉克在《风景论》中这样写道：风景也许是一种永恒的存在，因为自然是永恒的。风景画体现着人与自然之间的不可分离而又神秘的关系。实际上，艺术中的风景之美是人类对自然之爱的必然结果。

即使在16到19世纪西学东渐的过程中，中国主张“中体西用”、日本主张“和魂洋才”、韩国主张“东道西器”，在当时激烈的东西文化碰撞和演进的过程中，东方各国仍然保持着民族文化的独立性。由于地缘的优势，在长期的文化融合过程中，逐渐形成了具有地缘特点

的东方文化系统，使得东方各国的文化同一性为主，差异性为辅。

寄情于可游可居的山水是东方人一种理想化的生活方式，于是就产生了“东游”的概念。就像西游一样，神秘的东游一样令西方人神往，马可波罗的游记迷倒了无数的西方人，没有机会前往东方的人从他的游记描述中了解到了神秘的东方。东方国家之间的交流是相对便利的，而作为中国这个封闭过久的大国居民，回顾今年年初我们七人奔赴马来西亚游历、写生、在海港和丛林间捕取画境的情景，现在想起来似乎还像一场大餐和梦境。作为近邻，传统而现代的韩国原州有着韩国最洁净的自然环境和最美丽的山水风光，原州的艺术和艺术家纯朴自然，原州的地域风景和人文风貌清静、秀美、优雅，相信我们的原州艺术之旅也将美好地行走起来。

二、东方主义

赵无极说：“我觉得现在绘画的问题不是中国或者欧洲和美国的问题，而应当是国际性的问题。哪里是东方，哪里是西方，现在都分不开了。我觉得世界变得越来越小，将来还会更小，不要把自己放在一个圈套里。”

东方主义，从萨义德1978年提出这个概念以来，引起了广泛的东方文化与西方文化的争辩与思考，我们且不论东方与西方的孰是孰非，

东西文化的关系不应狭义地纠缠于二元对立与体用之争，而应立足于本民族文化的大背景下找到人类之体与世界之用之间的交叉点，从这种意义上来说，我们所提出的东方主义更应该是一种哲学理念、一种文化立场、一种独立于西方主义的姿态。

我们所要倡导的东方主义特指艺术上的东方特色。有别于萨氏，我们旨在消除东西文化的对抗立场，消除东西艺术的主义之争，我们也在试图找到一个有效的对话方式，形成东西文化的和而不同的共存共生的局面。传统时代，东方和西方有着截然不同的哲学理念和审美取向，与西方的严谨与科学理念不同，东方更关注的是隐匿在山水风景背后的人文思想。和西方美学相比，东方美学最大的不同在于其内涵“惚兮恍兮”，其外延“窈兮冥兮”，而其内涵则是“质精甚真”“其中有信”。也就是说东方审美趣味从表象上看是虚无缥缈的无为写意状态，但其内涵却是大道至真。这也就造就了东方主义特有的美学思想，即通过其外在的“恍惚”而传达出其内在的意境，这个意境就是东方艺术的精髓。东方艺术特别强调玄思，强调整体，强调意在笔先，不仅有其意，更要有其境，通过境之描绘传达意中之境。

西学东渐，近代西方学术思想向东方传播至今，韩国的艺术与学术发展有中国可借鉴之处，中国博大的文化艺术知识与资源也值得韩国艺术家长期深入交流与互动。中国的当代艺术已经丰富而多元，韩国在借鉴和吸收西方现代艺术的基础上，同样形成了具有东方哲学背景和审美情趣的本民族艺术，所谓的“东方主义”艺术面貌同样生动。

三、东方艺术的共生与生态

当下，人类社会发展的高度复杂性使我们警醒，知识领域进程的深广性使我们心存希冀，以共时态的、国际化的视角体验自然、社会和人生，中韩艺术家有着共同的使命和责任。中国和韩国一衣带水，韩国连绵的青山在地貌上是长白山脉的自然延伸，相同的自然生态养育着不同的民族，但中韩在文化上却是一脉相承的。古老的东方哲学影响了中国几千年，也同

样给予大韩民族以相同的哲学背景和思辨方式，由此所产生的文化生态的同一性并不随政体和国体的改变而产生变化。

近年来，韩国文化走向世界的成功经验深受广泛关注。中国学界对韩国的“文化立国”“文化产业”从国家战略层面、政策层面、内容层面、市场层面等进行了多方面的研究和分析。韩国文化国际化战略是政府主导型模式、市场主导型与民间主导型模式相结合的，而民间主导型在三种模式中的定位和作用在韩国文化发展中不可或缺的。韩国艺术的发展与韩国民间艺术团体的活力直接相关。

早春二月，韩国徐龙殷先生等艺术家到沈阳一行，艺术交流期间他特别谈到在巴黎求艺期间对他影响最大的艺术家是赵无极。徐先生开朗、豁达、热情、儒雅，熟读中国的《论语》和《道德经》，毫不掩饰自己对中国传统文化精华的认同。在巴黎求学期间，他深深地被赵无极的艺术理念和创作技法吸引，作品如其人，《自然》《梦岛》等作品，沿袭了当代艺术的洒脱放达、东方写意的审美趣味。可见，相同的文脉和文化传统造就了同类的世界观和艺术观。相似的山，相似的水，同样的肤色，没有地域和种族的隔阂，这种自然生态、社会生态和文化生态的相似性，让我们彼此的深度交流更具启发性。

本次展览适逢徐龙殷会长的三形国际艺术中心落成对外开放，三形国际艺术中心坐落在风景优美的江原道原州市郊，群山环绕、碧水蓝天，原生态、无污染的自然生态环境给艺术家提供了特有的创作和展示空间，相信通过我们共同的努力，这种东方的自然生态正在不断被关注，中韩国际文化艺术交流的社会生态也正在不断地被改良。

感谢徐龙殷会长、徐成德秘书长及各位同仁的辛勤付出，感谢韩国美术家协会赵康勋理事长、京畿道文联主席金一海先生的大力支持，感谢各位参展艺术家、资深学者以及各界朋友在中韩文化艺术交流中所作出的真诚投入，祝愿第六届中韩艺术展暨三形国际艺术节圆满成功！

2016年7月

동방주의와 동방예술생태를 유람하며

장천홍

1. 동방을 유람하며

나의 눈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했다

길은 뻗어 끝이 보이지 않고

갈색 풀밭 회색의 휴경지

새들이 여유작작 화목하게 모여 모이쫓고 구름송이 앞다투어 그곳에서 서식한다

루탑과 성벽에 푸른 나무들이 뻗뻗히 높이 둘러싸여 있다

——존밀텐 <환락송>

노장의 시대엔 산수가 세계관이었고 중국에선 산수예술이 세계관이었다. 산과 물은 갈라놓을 수 없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다. 중국풍경화가 또 산수화로 불리운다. 산과 물에 감정을 기탁함은 천인합일로 자연히 동방 전통의 우주관과 자연관으로 되었다. 전통의미상 “동방”은 구라파의 동부,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 등 국가를 포함한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동방”은 지리적 개념뿐만 아니라 문화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동방문화는 몇 천년을 겪으면서 중단되지 않았고 서방과 상호 대비되는 사상을 형성하였기에 서방사람들의 눈에는 동방이 신비하게 보였다. 동방의 여러 나라들은 화해문명의 영향을 깊게 받았기에 중국 전통철학과 유가사상을 특징으로 동방문화체계가 점차 형성되었다.

18세기 말, 영국의 존 밀텐 등 시인들과 존 컨스터블 등 화가들이 함께 풍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다. 그들은 회화와 시각의 가치가 풍경에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경화의 도덕의의, 패허의 미와 예술의 사회적 의의를 탐구하였다. 영국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풍경론>에 이렇게 쓰고 있다. “풍경은 어쩌면 영원한 존재이다. 그것은 자연은 영원한 것 이기 때문이다. 풍경화가 체현한 것은 사람과 자연간의 불가분리적이면서도 신비한 관계이다. 실제상, 예술 중의 풍경미는 인류가 자연에 대한 사랑의 필연적 결과이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학이 동방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중국은 “중체서용”을 주장하고, 일본은 “화혼양재”를 주장하고, 한국은 “동도서기”를 주장했다. 당시 동서문화의 격렬한 부딪침과 연진하는 과정에서 동방의 각 나라들은 여전히 민족문화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리적 우세, 장기적인 문화융합의 과정 중에서 점차 지리적 우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동방문화체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방 각 나라의 문화동일성을 위주로 하고 차이성을 보조로 하였다.

가유가거에 전념한 산수는 동방인의 일종 이상적인 생활방식이어서 “동유”라는 개념이 산생했다. 서유처럼 신비한 동유도 서방인들의 마음을 끌었다. 마르크 폴로의 여행기는 수많은 서방인들을 매혹시켰고 동방에 올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마르크 폴로의 여행기묘사에서 신비한 동방을 요해했다. 동방국가 지간의 교류는 비교적 편리하였지만 중국의 긴 봉쇄정책의 영향을 받은 국민으로서 금년 초에 말레이시아를 유람하고 사생하면서 항구와 수림의 화경을 수집한 정경을 회억하노라니 마치 성찬과 꿈과 같았다.

전통이면서도 현대적인 한국 원주는 한국에서 제일 순결한 자연환경과 제일 아름다운 산수풍경이 있다. 원시의 예술과 예술가들의 자연, 원주의 청정하고 우아한 지역풍경과 인문풍모가 우리에게 좋은 원주예술행을 남길 거라 믿습니다.

2. 동방주의

조무극은 “내가 보건대 현대회화의 문제는 중국 혹은 구라파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성 문제이다. 어디가 동방인지 어디가 서방인지 지금 분리할 수 없다. 내가 보건대 세계는 점점 작아져서 앞으로 더욱 작아질 것이다. 자신을 올라미에 매어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방주의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제출한 개념으로서 동방문화와 서방문화의 광범한 쟁론과 분쟁의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동방과 서방의 속시속비를 논의하지 않는다. 동서문화 관계는 2차원 대립과 체용지쟁의 협애한 뒤얽힘에 빠지지 말고 응당히 본민족 문화의 배경하에서 인류지체와 세계지용 간의 교차점에 입각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출한 동방주의는 일종의 철학관념이어야 할